

천추의 한이 풀릴 날은 언제...

시체 찾아온 사람 다 갖다 죽인다고 야단이 나고 막 그랬어. 궁께 우리 큰 딸이 아버지 도로 거기 갖다 물어 버리고... (한필남, 전남 구례)

한평생 좋은 꼴을 못 보고 살았다. 안 밝히고 죽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한을 풀어 줘야 한다. 저래 놓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안 된다. (박태선, 경북 영천)

1960년도에 유족들이 거가서 해골을 파라 해서 유족들이 다 가서 봤다 그래. 팔 적에도 형제간은 또 잡혀갈까봐 근처에도 못 오고, 내가 사흘을 그 더운 데서 뼈를 파는데도... (양기순, 경남 양산)

나만 알고 있었지. 이야기 안 했어. 여기 (위령비를) 세워 버리게 알지. 언제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 (서성국, 전남 나주)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100만 민간인 학살 사건

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후원회비는 폭력과 억압의 시대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시대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반세기 동안 은폐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운동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더 빨리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실 분은 주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동가는 학살 실태조사, 자료수집, 선전홍보 사업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태 조사



학살지에서 나온 유골▶

100만
민간인
학살,
이젠 밝혀야 합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5-8 3층

전화: 02-773-5158, 6158 전송: 02-773-5158

홈페이지 <http://www.genocide.or.kr> 이메일 genocide2002@hanmail.net

학살규명 범국민위

1990년대 후반 이후 인권, 평화 운동이 활발해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하면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유족, 단체, 학계, 종교계, 일반 시민 등이 2000년 9월 7일 한자리에 모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를 결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가 바로 서고 인권과 평화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별 유족회를 조직, 강화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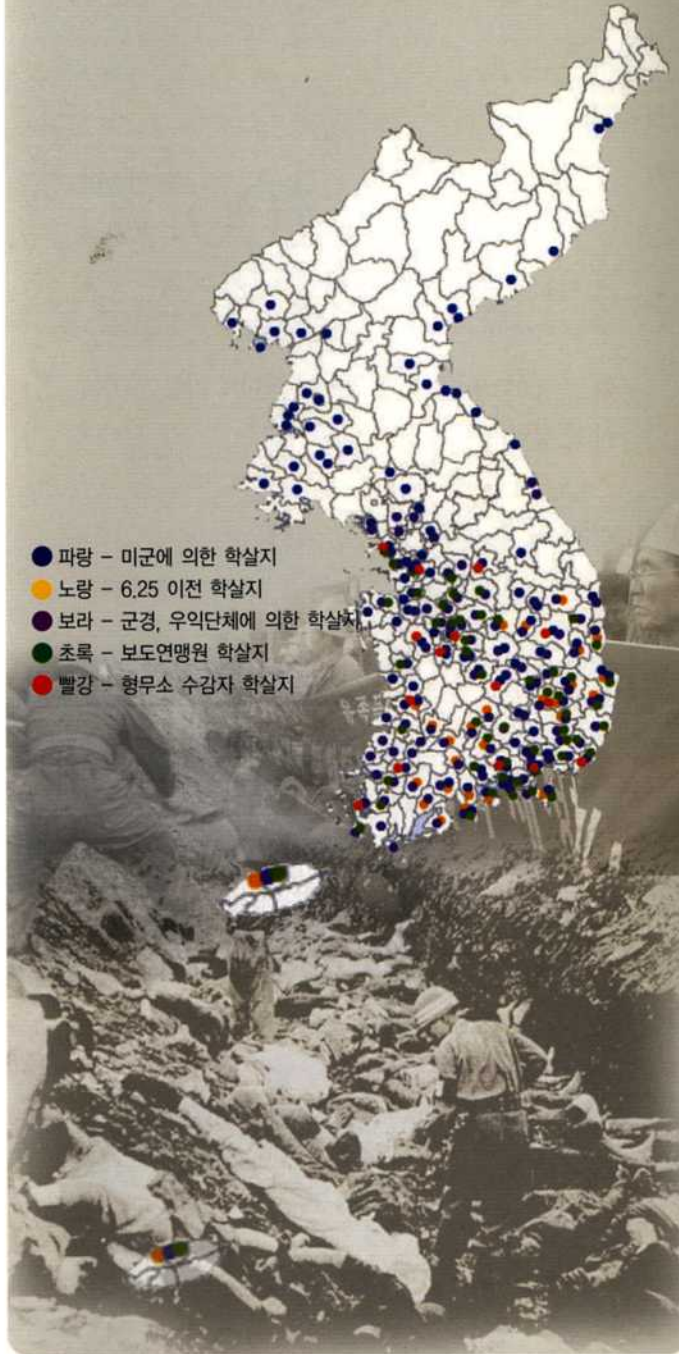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살 발표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학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학살 입문서를 발행하는 등 출판, 문화 사업등을 통해 민간인학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학살지



회원가입서

성명

전자우편

연락처

이동전화

주소

소속

가입동기

회비 자동납부 신청서 (CMS 출금 동의서)

예금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은행계좌번호

납부금액

출금일 4일 25일

본인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의 회원으로서 CMS 서비스를 통한 회비 자동이체에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CMS 제도란?

CMS는 금융결제원이 약정된 회비를 회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해당 기관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회원님께서 은행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이 줄고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범국민위원회는 제반 경비와 수수료를 아끼면서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을 수 있어 안정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